

# 「閑情錄」과 콩나물

許均은 은둔생활의 불편함을 느끼고 후일에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閑者들을 위하여 중국에서 가져온 4천여권의 책을 참고하여 「閑情錄」을 편찬하게 되는데 콩나물(숙주나물)에 대한 사항은 맨 마지막인 治農條編에 「豆芽菜」란 이름으로…

## 1. 콩나물의 유래

우리나라 고유, 전통식품인 콩나물에 대해서는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누가 콩나물을 개발하여 오늘날에 같이 식용화 했는지는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고려 고종代(1214~1260)에 편찬된 「향약구급방」(鄉藥救急方)이란 문헌에서 「대두황」(大豆黃)이라하여 콩나물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 있으나, 이 기록은 콩을 싹트게하여 햇빛에 말린것을 약으로 쓴다고 하였을뿐, 오늘날 같이 대중이 식용채소로 이용되는 것과 같은 그런 콩나물은 아니었다.

조선조 광해군代에 許筠이 편찬한 「閑情錄」의 治農編에는 豆芽菜라 하여 녹두나물에 대한 기록이 있다.

즉 「녹두를 잘 골라 물에 2주야 담가 충분히 불린것을 다시 깨끗

한 물에 씻고 일어 습한자리 위에 깔아둔다. 그위에 습한 자리를 덮어두면 녹두싹이 스스로 자라 오른다」

(揀菉豆水浸二宿候漲以新水淘控乾用芦席酒濕鋪地摻豆於上以濕薦覆之其芽自長〈豆芽菜〉)

이는 콩나물이 아닌 비록 녹두나물 이라 하지만 오늘날의 콩나물 재배 방식과 동일할 뿐더러 이 문헌을 기초로 하여 오늘날 콩나물 재배의 근원이 되지 않았나 하는 강한 추측을 하게되는 것이다.

## 2. 「閑情錄」의 편찬배경

「閑情錄」은 許筠(1569~1618)이 조선조 광해군 10년(1610)부터 편찬한 것으로, 閑者(士大夫)들이 은거生活中에 참고를 하기위해 엮은 책이다.

따라서 農書를 목적으로 엮은것

이 아니라 은거생활중 필수적인 지식을 수록하고 있다.

총16부문에 16권중 농경에 대한 것은 마지막권인 治農編에 삽입되고 있다.

許筠은 이러한 閑者들을 위한 「閑情錄」을 역고자 중국에서 4천여권의 서적을 구입하여 은거생활에 필요한 내용들을 발췌, 각 분야별로 분류, 정리함으로써 「閑情錄」을 완성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은 중국의 옛 閑者들의 生活이 대부분 기술된 것이다. 따라서 콩나물의 원조라할 수 있는 豆芽菜의 재배 방법도 중국에서 맨처음 개발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뒷받침 하게 하는 것이다.

## 3. 「閑情錄」은 農書가 아니다.

숙주나물의 재배방법이 수록되

어 있는 「閑精錄」의 마지막에 治農編은 농경부문을 다루었으나, 자연히 지주의 소작제도를 전제로 역어진 책이라서 농경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인에게는 절실하게 요청되는 책자가 되지 못했다.

이는 후에 許筠이 정치적인 사건에 연류되어 문초를 받기직전 外孫 李必進의 집으로 보내져 한정된 학자나 읽어 보거나 저술에는 간혹 이용되기도 하였지만, 인쇄되어 일반대중에게 까지는 유포되는 것을 금지시켜 왔던 것이다.

#### 4. 許筠의 생애

許筠의 집안은 문벌과 학문으로 명성을 떨치는 문신의 가문으로...

許筠은 추원부사(樞院府使)인 許曄의 3남2녀중 막내아들로서 선조2년(1569년)에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문벌과 학문으로 명성을 떨치는 문신의 가문으로 그의 큰형 箴과 작은형 箴는 이름난 사람으로 동인으로 중견이었다.

특히 누이 許蘭雪軒(1563~1589)는 여류문인으로 알려지고 있었거니와 이러한 속에서 성장한 그였기에 학문적 발전의 기회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있었다.

許筠의 6세위의 누나인 許蘭雪軒도 문학의 소질이 남달리 뛰어나는등 어려서부터 그는 문학과 접할 기회가 많았다.  
許筠의 문학실력은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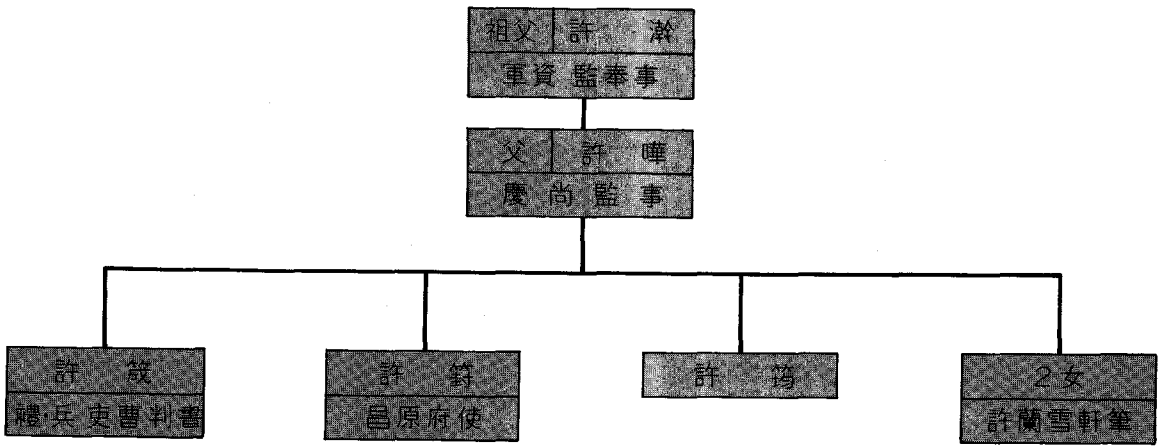
로 문학 가문에서 자라면서...

許筠은 12세때에 그의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큰형 箴를 염친으로 알고 학문연구와 문학에 전념하였다.

그의 큰형은 64세로 세상을 떠날때까지 조정의 중책을 두루 거치는등 임금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으며,

작은형 封는昌原府使등을 거쳤으나 한때 당파싸움의 회오리에 휘말려 유배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세에 회의감을 느끼고 후에 관직 재임용을 거절하고 방랑생활 도중 38세의 젊은 나이로 금강산에서 요절한 정의파의 사나이였다.

작은형 箴· 큰형 箴· 의 道學精神과는 달리 문학을 통하여 당대



의 젊은 패기를 나타내곤 하였다.

許筠은 6세위의 누나인 許蘭雪軒과 문학적인 친교가 더욱 두터웠다. 두사람은 李達로 부터 詩文을 교수받기도 하였다. 그는 20세(1589년)에 生員이 되었으나 그 다음해에 누이가 타계하자 그의 상심은 비할 데가 없었다. 불우하게 살다간 누이의 시문을 명나라의 사신에게 보여 그의 문장이 중국에서까지 높이 평가 받도록 하였다. 그의 누이는 비록 27세의 꽃다운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문학자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은 바로 許筠 자신이었다. 일찍이 9세때 시를 지어 어른들을 놀라게 하고 25세때에는 「庭試文科」乙科에 급제하여 그의 재능이 발휘되기 시작 하였다.

許筠은 28세때 文科重試에 장원급제 하여 황해도 都事가 되었으나 기생을 별실에 두고 즐겼다는 누명을 쓰고 파직되었지만 이내 흑백이 가려져 재임용 되는등 파란만장한 그의 관직생활을 통해...

그는 28세때(1597년) 文科重試

에 장원급제 하여 다음해 황해도 都事가 되었으나 기생을 별실에 감추어두고 즐겼다는 누명을 쓰고 파직되기도 하였지만, 이내 흑백이 가려져 春秋館注官, 刑曹正郎, 司藝와 司僕寺正을 지내고 1607년에는 尙衣院正을 비롯하여 三陟府使, 內資寺正, 公州牧使등을 거쳤으나 한때 불교를 신봉하였다는 죄목으로 파직 되었으나 다시 재등용되어 刑曹參議를 거쳐 1610년에는 陳奏副使로 명나라에 가서 천주교 기도문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이해에 試官이 되어 친척을 부정으로 급제 시켰다는 탄핵을 받은뒤 관직에서 물러나 전라도 태인땅에서 은거생활을 하게 되었다.

「閑精錄」은 許筠이 바로 이때(42세)부터 쓰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許筠은 자신의 은둔생활에 불편을 느낀 나머지 「閑精錄」집필을 구성하게 된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

광해군 6년(1613년) 癸丑獄事때의 살벌한 분위기를 느끼고 자구책으로 집권층의 한사람인 李爾瞻의 신임을 얻어 禮曹, 戶曹 參議직을 거쳐 承文院 副提調를 지내면서 1614년에는 千秋使가 되어 중국에 들어가 잘못 기록된 그곳의 史書에 우리나라의 역사부분을 시정 하는등 조선인으로서 기지와 정의감을 유감없이 발휘 하기도 하였다.

許筠은 불의와 부정에

함거하여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과의 반란계획이 탄로나 역적의 죄명으로 재산 몰수와 더불어 능지처참의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되는데...

48세가 되던해(1617년)에는 廢母論을 주장하여 대북파로서 왕의 신임을 받기도 하였으나 이를 기화로 하여 반란계획을 세울만큼 반항적으로 불의와 부정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1618년에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과 공모한 죄가 탄로나 재산 몰수와 더불어 능지처참의 비참한 최후를 마침으로써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의 장은 막을 내리게 되었으나 그가 생전에 저술한 우리나라의 최초 식품서인 「도문대작」(屠門大嚼), 농서인 「閑精錄」, 시평집인 「鶴山樵談」, 시선집인 「國朝詩刪」, 「홍길동전」등 후세에까지 길이 남아 읽혀지고 있는 것이다.

### 5. 「閑精錄」과 콩나물

「閑精錄」 治農編에는 일반작물로 벼, 보리, 메밀, 콩, 팥, 다음에 녹두의 재배요령을 기록하고 있다.

즉 「4월에 파종하여 6월에 거둘 수 있으므로 다시 8월에 파종하여

다시 거둘 수 있으니 일년에 두번 수확할수 있다. 이렇게 하여 녹두 가루를 만들거나 숙주나물을 기를 수가 있다」

(四月種六月收子再種八月收子一年兩熟可作豆粉又豆芽〈菜豆〉)라고 되어있다.

이것은 비록 단순하지만 녹두의 種實을 수확코져 재배할때에는 일반작물편에서 풀이한 것을 보면 녹두재배와 숙주나물 재배는 같은 녹두의 씨앗으로 씻을망정 목적에

따라 하나는 작물이고 또다른 하나는 채소로 구분되고 있다.

둘째로 이 「閑精錄」 治農編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콩나물 재배는 숙주나물보다 훨씬 뒤에 발전되었다는 점이다. 콩재배는 있으나 콩나물 재배가 없는 것을 보면 許筠이 살던 17세기 초에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콩나물 재배나 콩나물 이용이 아직 없었던 것이 아닌가 믿어진다. 따라서 콩나물 재배는 숙주나물 이후의

어느 시기에 숙주나물 재배 이용에서 터득한 기술을 콩에 적용시킨 것이 아닌가고 예측을 하게되는 것이다.

1700년 경에 저술된 홍만선의 「山林經濟」나 이후 1766에 유증림에 의해 증보된 「增補山林經濟」등에도 콩나물에 대한 사항을 볼수 없는것은 콩나물 재배는 우리나라에서 그리 오랜 역사를 갖지 않은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하는 것이다.

